한국, 中 창춘 입성…"2위 수성"

■ 동계아시안게임 28일 개막

40억 아시아인들의 동계 스포츠 제전인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이 오는 28일 개막해 8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지난 1996년 하얼빈 대회 이후 11년 만에 중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6개국에서 선수 816명 등 총 1천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빙상과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 5개 종목에 걸쳐 총 47개의 금메달을 놓고 레이스를 펼친다.

164명의 선수단 중 본진 112명이 25일 열전의 현장 창춘에 입성한 한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종합 2위 수성.

지난 1986년 제1회 삿포로 대회부터 줄곧 참가했던 한국은 안방에서 열린 1999년 강원도 용평 대회 때 2위로 올라섰고 4년 전 제5회 아오모리 대회에서도 중국을 따돌리고 일본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켰다.

개최국 중국이 1위 탈환을 노리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 치열한 종합 2위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쇼트트랙 선수들이 한국 2위 수성의 선봉에 선다.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나란히 남녀부 3관왕에 오른 안현수(한국체대)와 진선유(단국대 입학 예정)가 쇼트트랙에 걸린 전체 8개의 금메달 싹쓸이에 앞장서고 기량이 날로 향상되는 이호석(경희대)과 변천사(한국체대)도 메달 사냥에 힘을 보탠다.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500m에서 동반 금메달을 수확한 이강석(한국체대)과 이상화(한국체대 입학 예정)도 아시아 빙속 최고의 스프린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쇼트트랙 男 5,000m 내일 '금빛질주' 기대

TORINO 2007 Winter Universiade
동계U대회

한국 쇼트트랙이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남자 5,000m 계주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조남규(단국대), 이승훈(한국체대 입학 예정.신목고), 성시백(연세대), 이성훈(한국체대)로 구성된 계주조는 지난 24일 밤(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펼쳐진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준준결승에서 7분01초670을 기록하며 선두로 골인했다.

한국은 이에 따라 27일 오전 4시에 열리는 준결승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와 함께 1조에 속해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결승전은 준결승 1, 2조의 상위 2개팀이 진출해 준결승 이후 곧바로 진행된다.

한국은 25일 오후 6시부터 펼쳐지는 쇼트트랙 남녀부 1,000m에서 금메달 2개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 5,000m 계주까지 우승한다면 2005년 인스브루크 대회에 이어 쇼트트랙 전종목 석권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쇼트트랙 이외에 나머지 종목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남자 컬링 대표팀은 예선 풀리그 최종전에서 중국에 7-12로 져 4승 5패로 공동 5위에 처져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은빛설원 질주 스노우 보드 25일 오후 강원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열린 2007 버튼 클래식 스노우보드 대회에서 참가선수들이 은빛 설원을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샤라포바 정상 다툼 세레나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2위·러시아)와 '흑진주' 세레나 윌리엄스(81위·미국)가 총상금 147억원이 걸린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격돌한다.

■ 내일 호주오픈테니스 女결승

지난해 US오픈 우승자인 샤라포바는 25일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계속된 대회 11일째 단식 4강전에서 벨기에 마녀 킴 클리스터스(5위)를 2-0(6-4 6-2)으로 제압하고 이 대회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세레나도 앞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제2의 샤라포바'로 불리는 니콜 바이디소바(12위·체코)를 2-0(7-6〈7-5〉 6-4)으로 물리치고 지난 2005년 이 대회 우승 이후 2년 만에 메이저대회 결승을 치르게 됐다.

샤라포바는 27일 열릴 결승전에서 세레나에게 2년 만에 설욕을 노린다.

샤라포바는 세레나와 통산 전적 2승2패로 호각지세이나 최근 격돌했던 2년 전 호주오픈 준결승에서 세레나에게 1-2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샤라포바를 넘은 세레나는 당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호주오픈 정상에 등극했었다.

다음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위에 복귀하는 현역 최고 선수 샤라포바와 남성 못지 않은 파워를 앞세워 한 시대를 풍미한 종전 세계 1위 세레나의 '신구 여왕 대결'은 테니스 팬들의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박태환, 日대표팀과 함께 괌 전지훈련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괌 전지훈련에서 일본 경영 대표팀과 함께 훈련한다.

박태환의 해외전지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후원사 '스피도'는 "박태환이 오는 29일 괌으로 떠나 2주간 해외 전훈을 하는데 마지막 일주일은 일본 경영 대표와 같은 장소에서 훈련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대표에는 박태환의 아시아 지역 장거리 자유형 라이벌인 마쓰다 다케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훈련하며 서로 장점을 배울 수 있다.

스피도가 괌을 전훈 장소로 택한 건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호주 멜버른의 3월 낮 평균 기온이 25~26℃ 가량 되기 때문에 그보다 5~6℃ 가량 더 높은 괌에서 훈련을 하며 더운 기후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다. 또 괌에는 50m짜리 정규 코스 수영장을 갖춘 특급 호텔이 있어 박태환에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려는 목적도 있다.

스포츠 중계

26일(금)
▲제34회 MBC 권투 신인왕전(13 : 50·MBC)
▲BWF 배드민턴 코리아오픈 8강(13 : 50·SBS스포츠)
▲호주오픈 테니스 남자준결승(17 : 30·MBC ESPN)

27일(토)
▲분데스리가〈로르트문트-바이에른뮌헨〉(04 : 30·MBC ESPN)
▲PGA투어 뷰익 인비테이셔널 2R(05 : 00·SBS스포츠)